호주전 초반 수세를 반전시킨 결정적 한 방 | 벤투호와 한국축구의 희망이 된 황의조

황의조가 17일 호주 브리즈번 선코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8월 열린 아시안게임부터 각종 경기에서 쉼 없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주가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김민재 패스 받아 벼락같은 선제골
AG 때부터 석달간 거의 매 경기 골
이영표 해설위원 "1년 80골 페이스"
한국축구 골 결정력 높일 에이스로

역시 황의조(26·감바 오사카)였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17일 호주 브리즈번 선코프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비록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이번 평가전에서도 황의조의 진가는 다시 한 번 나타났다. 그는 전반 22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기습적으로 호주의 수비 라인을 침투해 골을 뽑아냈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 호주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 골로 분위기를 확 바꿨다.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A매치에서 골을 뽑아낸 황의조는 두 달 연속 A매치 골을 뽑아냈다.

최근 황의조의 골 페이스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7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며 엄청난 골 결정력을 과시한 그는 이를 시작으로 소속팀과 A대표팀에서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AG부터 이번 호주와의 A매치까지 석 달간 25경기에 출전해 무려 24골을 뽑아냈다. AG 이후 치러진 9월 A매치에서는 비록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소속팀에 돌아가자마자 골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매서운 감각을 이어오고 있다. 감바 오사카에서는 6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1골씩을 기록 중이다. TV 주말 예능, 드라마도 방송 일정으로 인해 결방할 때가 있는데, 황의조의 골은 '결방'이 없다.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TV 중계를 맡은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1년간 페이스를 이어간다고 고려하면 80골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수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골 결정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약점이었다. 지금의 황의조라면 축구대표팀의 오랜 숙원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이번 평가전에서도 그는 단 한번의 슈팅을 골로 연결했다. 스스로도 '오른발에 걸리면 골'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다.

축구대표팀은 11월 원정 A매치 명단에 기성용(뉴캐슬), 손흥민(토트넘) 등을 제외시켰다. 또한 이재성(홀슈타인), 황희찬(함부르크) 등도 부상으로 빠져 공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비록 경기 종료 직전 호주에게 골을 내주면서 1-1 무승부로 승부가 끝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안정적인 빌드-업과 패스를 해줄 기성용, 상대 수비수들을 몰고 다니는 손흥민이 빠진 가운데에서도 황의조가 '원샷원킬'의 가치를 재차 증명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황의조는 전반 종료 직전 종이라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부상이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다.

대표팀을 지휘하는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은 "우리 플레이스타일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선수다. 그의 능력을 알고 있다. 좋은 선수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굳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벤투 감독만 황의조를 믿는 것이 아니다. 축구 팬들도 황의조에게 굳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롯데, 양의지 쟁탈전 참전

▶1면에서 이어집니다

롯데는 최근 FA시장에서 과감한 투자를 계속했다. 지난해 스토브리그에서 손아섭에게 98억원, 민병헌에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시즌을 앞두고선 이대호에게 150억원을, 2016년에 앞서는 불펜투수 손승락, 윤길현에게 98억원을 썼다. 최근 3년 투자 액수만 426억원이다.

그러나 숙원인 한국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올해는 포스트시즌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삼성으로 이적한 포수 강민호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다.

롯데가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조원우 전 감독과 결별하고 양상문 신임 감독을 영입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 가능성이었다. 경험과 단기전 능력, 팀 전력 파악, 선수단 장악 면에서 양 감독의 관록을 높이 평가했다.

롯데 경영진은 우승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수년 간 공격적인 투자능력을 과시했다. 롯데의 가장 큰 약점인 포수는 단기간에 성장이 가장 어려운 파트다. 반대로 포수에 대한 한번의 과감한 투자는 공격력과 마운드 전력 모두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롯데가 양의지 쟁탈전 참전을 결정한 이유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에 배우 목소리 믹싱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것이 궁금해!

폭력 조장…국내선 94년 금지해제
재기무대 '라이브 에이드' 극적 설정

그룹 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18일 전국 누적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는 '팝음악 세대'인 40~50대를 넘어 10대와 20대까지 폭넓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40~50대는 각종 SNS를 통해 반복 관람의 감상을 전하고 있고, 그보다 젊은 관객은 귀에 익은 음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진한 여운을 나누고 있다. 실제 밴드의 이야기를 토대로 픽션이 어우러진 영화는 동시에 관객에게 많은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 그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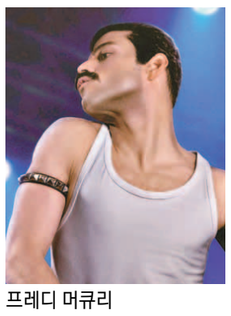
● '보헤미안 랩소디'는 왜 금지곡이었나?

영화 제목이기도 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이 1975년 발표한 네 번째 앨범 'A night at the Opera'의 수록곡. 5분54초의 긴 노래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다. '방송 금지곡'이었던 탓이다. 1994년 8월12일 방송위원회는 방송 금지곡 1752곡 가운데 847곡을 해제하며 '보헤미안 랩소디'를 포함시켰다.

노래는 한 남자를 총으로 저격한 뒤 엄마에게 고백하는 내용의 노랫말로 '폭력을 조장하고 묘사했다'며 금지 당했다.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는 자신 안의 '남성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은유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 '보헤미안 랩소디', 누가 불렀나?

영화는 퀸 멤버들의 우정과 갈등, 화해의 이야기로 관객의 보편적인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다. 핵심은 음악이다. 'Love of My Life', 'Some body to Love',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 등 숱한 명곡이 관객의 귀를 간질인다.



프레디 머큐리

극중 노래는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라미 말렉을 비롯한 배우들의 음성을 기본요소로 삼았다. 퀸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녹음과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실제 공연 모습 등을 재연했다. 여기에 생전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보태거나 그대로 입혔다. 프레디 머큐리의 창법과 음색 등을 빼닮은 퀸의 헌정 밴드 '퀸 엑스트라 바간자'의 보컬 마크 마텔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렇게 제작된 음악은 이미 CF와 드라마, 영화 등 숱한 영상 콘텐츠 속에 배경음악으로 등장했다. 그만큼 대중의 귀에 익숙해져 있었다. 젊은 관객은 영화를 통해 비로소 퀸의 음악임을 알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 '라이브 에이드' 그리고 '위 아 더 월드'

극중 '라이브 에이드'는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 활동과 방황 등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퀸이 재기에 나서는 무대로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 퀸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이었다.

극적 전개상 설정한 '라이브 에이드'는 아일랜드 출신 가수 밥 겔도프가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돕기 위해 기획한 대형 공연. 1985년 7월13일 영국 런던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동시에 펼쳐진 무대에서 퀸은 팝 음악사에 남는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퀸과 함께 폴 매카트니, 데이비드 보위, 엘튼 존 등 영국 출신 가수들을 주축으로 한 팝스타들이 나섰다.

밥 겔도프는 1984년 말 이들을 묶은 '밴드 에이드'를 통해 자선앨범 'Do They Know It's Cristmas'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1985년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 출신 45명의 가수들은 퀸시 존스를 비롯해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가 주도한 'We are the World'를 부르며 'USA For Africa'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한국경제연구원 '2017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

상위 10% 월급쟁이 조건 연봉 6746만원은 넘어야

1억원 이상 44만명…평균 연봉 3475만원

2017년 연봉별 근로자 분포

연봉액(원)	근로자수	비율
1억 이상	44만명	2.9%
8000만~1억 미만	51만명	3.4%
6000만~8000만 미만	108만명	7.1%
4000만~6000만 미만	234만명	15.4%
2000만~4000만 미만	611만명	40.2%
2000만 미만	472만명	31.0%

※조사|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의 '월급쟁이'가 되려면 연봉이 6746만원은 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2.9%인 44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자 1519만 명의 고용노동부 원시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75만원이고, 상위 10%의 연봉은 674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위 20%는 4901만 원 이상, 상위 30%는 3900만원 이상, 상위 40%는 3236만원 이상, 상위 50%는 2720만원 이상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016년 3400만원보다 75만원(2.2%) 올랐다. 연봉이 낮은 집단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2016년 대비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이 60만원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02만원 올랐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규직 임금격차가 2.0% 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봉은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며 "2, 3분위 연봉이 5.0~5.3% 오르고, 중소기업 정규직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0.9% 감소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이 44만 명인 것을 비롯해 8000만원~1억 미만 51만 명, 6000만원~8000만원 미만 108만 명, 4000만원~6000만원 미만은 234만 명, 2000만원~4000만원 미만은 611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472만 명에 달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